단 하나의 정답

(눅23:44-56)

44.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45.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7.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48.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49.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50.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52.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53.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54.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5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단 하나의 정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점을 표현해내는 한 특징적인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지선다형의 시험을 통하여 대학입시를 치러야만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입시까지 도달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대하는 것이 사지선다형의 시험입니다.
모든 문제를 사지선다를 해서 답을 골라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체질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체질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삶에서 부딪히는 일들은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후보들이 TV에 나와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화두는 모두에게 공통된 화두인데, 대체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이루어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요즘 부동산 시세가 자꾸 떨어지는데,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접근해보려고 하면 저쪽이 문제이고, 저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이쪽이 문제가 됩니다.
정치문제 그렇습니다, 군사문제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문화 쪽으로 오면 더 강하게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술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지선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지만, 문제는 수만 가지입니다.
각 문제에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괜찮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문제마다, 각 문제에 해당되는 각각의 하나의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 사회는 그 각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실제 삶으로 들어오면 하나의 정답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성경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각 문제마다 하나의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통틀어 단 하나의 정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이 성경말씀이 경제문제에 대항하는 하나의 문제를 답하고, 정치문제에는 정치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말하고,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총망라해서 단 한 가지의 정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서 경제학과 학생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시험지에 답안을 쓰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인 차원의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는 단 하나의 답이 있을 뿐이고, 그 경제문제에서 답이었던 그 답을 정치문제에 쓰면 되고, 예술 분야에 쓰고, 자녀교육에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음악가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을 바로 자녀교육에 대해서 엄마가 쓰면 된다 이겁니다.
건강문제에 대해서 바로 그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정답만을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쉽고 편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전해지고 있는 십계명, 심지어 산상수훈조차도 이 단 한 가지의 정답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열 가지 계명을 다 외우면서 지킬 필요가 없고, 십계명이 이루어지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그 한 가지의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얘깁니다.
46절,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바로 이 운명하시는 장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라는 한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되면서, 이 죽음이 바로 만 가지 문제에 있어 단 하나의 정답이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정답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손에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 답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숨져야 됩니다.
숨지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 이게 바로 단 하나의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 흔한 돈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돈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돈 문제를 해

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틀린 답입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어떡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할 수 있습니까?
숨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정답인 것이에요.
자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숨지면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의 문제를 걱정할 때, 그 나라의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이, 나라의 문제를 떠맡고 있는 대통령이 그 나라 문제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내신 십자가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정답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 실제가 되려면 숨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오해하며 살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틀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아뢴다, 그리고 내려놓는다, 이 모든 말들이 다 틀린 말들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있는 게 아닙니다.
맡겨도 내가 주체요, 내려놓아도 내가 주체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주체인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게 맡겨진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맡길 것이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맡겨버리고, 내 영혼을 제대로 맡기려면 숨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답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꼴깍 숨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숨지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숨진다는 것일까?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할 때의 그 영혼이 헬라어로 '프뉴마'입니다.
spirit이라고 할 때의 영(靈)을 말합니다.
Holy Spirit이라고 말할 때의 spirit도 프뉴마이고, 악령을 말할 때도 프뉴마를 쓰고, 지금 여기서는 영혼,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데, 또 프뉴마를 씁니다.
이 신약성경에서 프뉴마라고 하는 이 말이 헷갈릴 정도로 많은 뜻을 갖고 사용되어집니다.
영, 정신, 마음, 정신이라는 게 spirit, 헤겔이 자기 철학에서 말하는 절대정신이라는 게 또 spirit 아니겠어요?
이렇게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바람, 히브리어의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게 '프뉴마'인데, '숨지다'고 하는 단어를 보면 희한하게 '프네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프뉴마'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사람들에게 있어서 호흡을 한다는 것은 '프네오'라는 단어에요.
'숨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엑세프뉴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엑세프뉴센'라는 단어가 '프뉴마'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프네오'에서 발전된 단어입니다.
'프네오'가 호흡한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프뉴마'가 마음, 정신, 영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사람들에게 있어서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생리적인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쉬어서 숨이 기도를 통해 허파로 들어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뜻의 호흡뿐만 아니라, 호흡이라고 할 때는 '프네오', '프뉴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쓰

는 것을 호흡이라고 한 것입니다.
생리적인 호흡만이 아니라 정신을 쓰고 마음을 쓰는 것을 호흡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숨진다고 하는 말은 정신 쓰는 것을 중단한다, 마음 씀을 멈춘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사람이 코로 숨만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이 뭐냐 하면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뉴마'가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하는 이 호흡,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혼을 맡긴다, '프뉴마'를 맡긴다는 것은 '프네오'를 멈추는 겁니다.
즉, 마음 씀을 멈춘다는 얘기에요, 정신을 쓰는 것을 멈춘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내 마음, 내 정신을 쓰는 것을 중지할 때, 내 마음이 맡겨지는 것이고, 내 정신이 맡겨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문제가 생기면 우선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건강에 대한 마음 씀을 멈춘다, 이게 숨지는 겁니다.
이렇게 숨짐으로써 '내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말썽을 피운다면 자식에게 마음 씀을 중단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신경 쓰는 것을 중단하는 겁니다, 이게 숨지는 거예요.
이렇게 숨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게 됩니다.
숨지지 않고는 이 부탁이 완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일이 완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숨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숨지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이 십자가를 번역하고 해석해낸 것입니다, 깊이 이해한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제로원(0,1)복음의 뿌리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부탁이 완결되기 위해서 숨지셨습니다.
신경 씀을 중단하고 마음 씀을 중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이 죽음의 기간 동안이 안식일을 포함한 기간이 돼버립니다.
24장에 마리아가 안식일 끝난 다음날에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운명하신 그 직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러고 나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시는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포함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안식일을 싹 끌어가버리면서 이 땅에 안식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는 7일 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님의 죽음으로 끌어가버렸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숨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은 시도 때도 없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면, 날마다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 안에 안식이 포함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식이 사도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기쁘다는 그 기쁨이 바로 안식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일이 주어질 때마다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버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숨져버립니다, 정신 쓰고 마음 쓰고 신경 쓰는 것을 십자가를 붙잡고 중단해버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 안식의 내용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포함하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는데, 아버지의

손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장갑으로 끼십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이 장갑으로 끼셔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내 영혼을 맡기고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요?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식의 특징은 마음의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손에 부탁했던 내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장갑으로 끼셔서 부활합니다.
그것을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바울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아마 '단 하나의 정답'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런 염려를 했을지 몰라요.
특별히 문학인이라든지 예술가들이 획일화를 염려했을지 모르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정답은 하나였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장갑으로 끼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그러나 나를 장갑으로 끼셨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은, 나비의 모양을 보면 그렇게 많은 종류의 나비가 있고, 꽃을 보면 그렇게 많은 꽃이 지구상에 있고, 바다 속에 그렇게 다양한 생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십니다.
이 단 하나의 정답을 추구해 들어갈 때, 너무나 다양한 창조적인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 한 번 살아볼 만한 거예요.
이 단 한 가지 정답만 있으면 돼요.
이 한 가지 정답만 하면 십계명이 이루어지고, 한 가지 정답만 하면 산상수훈이 이루어지고, 경제문제가 답을 얻고, 자녀문제가 답을 얻고, 직장문제가 답을 얻고, 결혼문제가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이 단 한 가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드리고, 그 부탁이 완결되기 위해 숨지는 것만 하면 답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 쓰고 마음 쓰고 신경 쓰는 일을 끝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양한 창조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 매순간마다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고, 각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오늘 하루, 염려하실 것 없어요.
무슨 문제에 부딪히면 여러분이 염려하실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염려마세요, 그냥 이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사건을 내 마음속에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다면, 항상 하는 기도도 불가능하고, 정답을 수행해나갈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복음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단 하나의 정답을 수행하심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결실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기가 막힌 단 하나의 정답만으로, 오늘 하루를 모든 문제를 관통하여 일관해나갈 수 있게 하심으로 안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장갑 되어, 삶에 다양한 창조적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